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미 올해 1 분기 GDP 2%로 상향 조정... 소비 지출 확대 때문
- Bloomberg:지난 연휴 미 실업청구 건수 2021년 이래 가장 감소
- Bloomberg:파월 의장, “인플레 통제 위해 2번 이상 금리 인상 필요”
- WSJ: 파월 의장, “은행 실패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정과 감독 필요”

#### 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 국채 수익율 급격히 상승... 실업수당, GDP 발표 때문

#### [부동산]

- 주택 구입 능력있어도 임대가 현명할 수 있는 3가지 이유

#### [인공지능 AI]

- Bloomberg: AI가 미중기술 경쟁에서 도화선이 되는 이유는?
- Bloomberg: 무디스사, 리스트 평가 리서치 도구로 OpenAI 등 사용
- Bloomberg: AI 비디오 스타트업, 구글 등서 1억4천1백불 유치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CNBC: 델타항공 수익 확대 예상... 강한 수요와 프리미엄 티켓 덕분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**Bloomberg: US First-Quarter GDP Revised Up to 2% on Exports, Consumers**

#### **미 올해 1 분기 GDP 2%로 상향 조정... 소비 지출 확대 때문**

- 올해 1분기 GDP가 연율로 2%로 상향 조정됐다. 당초 추정치는 1.3%였었다.
- 이같은 상승폭은 미 수출과 소비자 지출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.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계 지출은 서비스 지출이 상향조정되어 거의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4.2%의 속도로 늘어났다.
- 그런데 연준이 주의깊게 지켜보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하향 조정됐다.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1분기에 4.9%로 상승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# **Bloomberg: US Jobless Claims Drop by Most Since 2021 in Holiday Week** **지난 연휴 미 실업청구 건수 2021년 이래 가장 감소**

- 6월 19일 연방 공휴일이 낀 주의 미 신규 실업청구는 2년전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했다.
- 즉 6월 24일 끝나는 주의 건수가 2만6천개가 감소한 23만9천건으로 집계됐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.
- 계속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청구숫자는 1백70만 건으로 줄어들었다. 이수치가 조사된 때는 6월 17일 끝나는 주였다.

Bloomberg 기사

### **Bloomberg: Powell Says Likely Need Two or More Hikes to Cool Inflation** 파월 의장, “인플레 통제 위해 2번 이상 금리 인상 필요”

- 연준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 2%로 낮추기 위해서 올해 최소 두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연속적인 정책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.
- 그는 연준 FOMC 참석자 대부분이 연말까지 금리를 두번 이상 올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예상하다고 말했다. 지속적인 인플레 상승을 2%로 낮추기 위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.
- 그는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중앙은행 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발언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 **WSJ: Jerome Powell Says Bank Failures Underscore Need for Stronger Regulation, Supervision** 파월 의장, “은행 실패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정과 감독 필요”

- 파월 의장은 Silicon Valley Bank 은행과 다른 2개 중견은행의 몰락은 은행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자본 완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-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그는 대형 은행의 자본 부족이나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면 지난 몇달 동안의 혼란은 관리하기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.
- 이와 관련 연준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서명한 법으로 인해 중견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일부 비난을 받았다.

WSJ 기사

### **[미국 금융]**

### **Bloomberg: Treasury Yields Spike as Data Fuel Fed Hike Bets: Markets Wrap**

#### **미 국채 수익율 급격히 상승... 실업수당, GDP 발표 때문**

-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줄고, GDP도 좋다는 경제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두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.

- 국채의 경우 2년물 수익률은 16bp 상승한 4.87%를 기록했다. 그리고 스왑 시장은 연말까지 연준이 두차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50%로 보고 있다.
- S&P 500 지수는 흔들거렸으며, 분기 말 거래자들이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주식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여진다.

## Bloomberg 기사

### 부동산

#### **CNBC: 3 reasons it can be smarter to rent, even if you can afford to buy** 주택 구입 능력있어도 임대가 현명할 수 있는 3가지 이유

-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미국 성인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인다.
-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 입장에서 임대가 더 좋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.
- 그 이유는 임대는 유연성이 있고, 주택 구입과 관련된 까다로운 요인들과 보이지 않은 숨겨진 비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재정 전문가들은 말했다.

## CNBC 기사

### [인공지능]

#### **Bloomberg: Why AI Is Next Flashpoint in US-China Tech Rivalry** AI가 미중기술 경쟁에서 도화선이 되는 이유는?

- 중국의 AI 사용 상황은 미 관리들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.
- 중국의 감사기관은 AI를 이용해 범죄와 사회 불안을 단속하고 있다. 특히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바로 최근에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했던 것이다.
- 현재 미국은 중국 기술업체에 대한 투자 활동에 제재를 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.
- 한편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## Bloomberg 기사

#### **Bloomberg: Moody's Will Use Microsoft, OpenAI for Research Tool to Assess Risk** 무디스사, 리스트 평가 리서치 도구로 OpenAI 등 사용

- Moody's 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를 활용해 신용평가 및 리서치 회사 고객들에게 위험 평가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인공지능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.
- 즉, 애널리스트와 은행가들, 어드바이저, 투자자들을 포함한 고객에게 출시될 예정이라는 것.
- 무디스사는 또한 예를들어 대출과 인수와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한 미래의 AI 지원도구를 구상하고 있다.

## Bloomberg 기사

**Bloomberg: AI Video Startup Runway Raises \$141 Million From Google, Nvidia****AI 비디오 스타트업, 구글 등서 1억4천1백불 유치**

- 해당 스타트업은 이른바 Runway사. 이 회사는 몇개의 단어만 입력하면 짧은 동영상 만들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다.
- 이 회사는 이와 관련 구글, 엔비디아, 세일즈포스 등으로 부터 1억4천1백만달러를 유치했다.

## Bloomberg 기사

**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**CNBC: Delta lifts profit forecast thanks to strong demand and premium tickets****델타항공 수익 확대 예상... 강한 수요와 프리미엄 티켓 덕분**

- 델타 항공사는 연간 조정 수익을 이전에 발표한 가장 높은 규모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또한 올해 잉여 현금 창출 추정규모다 상향조정했다.
- 이 항공사는 다음주 화요일 투자자의 날을 열고 그리고 다음달에는 2분기 실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.

## CNBC 기사

**[보고서]****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정보**

미국 연방정부가 정부 외부 주체에게 진 빚이 2029년에 국내총생산(GDP)의 107%로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뒤 30년 후인 2053년에는 더 불어나 181%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.

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(CBO)은 '2023년 장기 예산 전망'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의 부채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방정부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(WP) 등이 28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보유 주체를 기준으로 정부 내(Intragovernmental Debt) 채무와 공공보유채무(Debt Held by the Public)로 나뉜다.

CBO에 따르면 개인·기업·지방정부·외국정부·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등 연방정부 이외 주체에게 진 공공 보유채무는 지난해 말 GDP의 97%에서 올해 98%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.

또 2029년에는 GDP의 107%를 기록해 역사적 고점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의 106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.

이후 2053년에는 GDP의 181%에 달한 뒤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. 다만 이는 재량적 지출 전망 하향 등을 반영해 CBO가 올해 2월 예측했던 195%보다는 내려간 것이다.

CBO는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미세하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'도전적'이라고 보면서, 향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.

그러면서 "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외국의 미 국채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날 것"이라면서 "재정 및 경제 전망에 중요한 위험을 가하고 의원들의 정책 선택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"고 우려했다.

WP는 이러한 전망에는 미국의 경제 체력과 기준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,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(물가상승) 대처와 관련한 여러 가정이 반영되어 있다면서도 CBO가 장기적인 재정 상태와 관련한 중대한 위험을 제기했다고 평가했다.

## [국제 금융 시장 동향]

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파월 의장의 금리인상 가능 발언 등이 영향  
주가 약보합[-0.0%], 달러화강세[+0.5%], 금리 하락[-6bp]

[주가\*]: 미국 S&P500지수는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매도 증가 등으로 약보합 마감

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강세 등으로 0.7% 상승

[환율\*]: 달러화지수는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상승
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3% 하락

[금리\*]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 
독일은 저조한 7월 Gfk 소비자신뢰 등으로 4bp 하락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unsubscrib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